

반백년 지켜온 '원탁' 동인 문학 역사가 되다



50돌 맞은 '광주 원탁시회'

김현승 영향...범대순 등 창립
윤삼하·문병란·손광은 거쳐
20여명 활동 "새 도약 발판"
이달 기념호 발간 행사 다채



원탁 창간호

많은 문인들은 동인회 활동을 통해 문학적 역량을 축적하고 창작활동의 토대로 삼는다. 우리나라 근현대문학사를 보면 '창조'와 '영대' 등과 같은 동인지를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펼쳤던 이들이 적지 않다. 김동진, 주요한과 같은 문인들이 대표적이다.

남도에도 한국 현대시단을 잇는 동인들이 있었다. 1930년대 박용철·김용림이 주축이 됐던 '시문학'을 비롯, 67년 출범한 '원탁시' 그리고 80년대 시대의 아픔을 형성화했던 '오월시' 동인지를 들 수 있다.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한 여러 동인지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고 중앙 문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동인지가 있다. 바로 '원탁시'다. 지난 1967년 결성된 '원탁'의 역사는 광주 동인문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탁시' 동인이 올해로 결성 50주년을 맞아 문단 안팎에 화제가 되고 있다. 1967년 5월 1일 첫 창간호를 펴낸 지 반백년 만에 통권 62호 발간을 앞두고 있는 '원탁시'는 전국 최장수 시 동인이라는 역사도 함께 쓰고 있다.

당초 원탁시는 광주 문단의 스승이었던 당초 김현승 시인의 영향을 받으며 문학 활동을 펼쳤던 지역 출신 시인들이 대거 동참했다. 범대순·윤삼하·정현웅·박홍원·손광은·김현곤·송선영·황규련 시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원탁'의 결성은 범대순 시인(1930~2014·前전남대 영문과 교수)이 주도하면서 시작됐다. 범 시인은 '원탁' 발기인으로 창립을 주도했으며 초대 회장을 맡는 등 골격을 만들었다.

'원탁시'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영창권 시인(광주교대 교수)은 '문학동인회 원탁시(圓卓詩)의 전개 과정'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밝힌다. "동인지 '원탁'의 명칭은 그런 연고로 67년 1월 광주 YMCA 사회실에서 열린 발기인 모임에서 범대순의 제의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원탁은 아사왕의 전설로 영문학적 개념이다. 로마의 집락을 물리친 130명의 원탁의 기사에 원탁에 앉아 상하 없이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동등하게 토론하였다는 전설에 입각한다."

영 교수는 원탁의 태동과 역사는 생전의 범 시인의 회고담에서 들었다며 "'원탁시'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과정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인문저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여성, 장애인, 하층민 등 역사 속 소외계층을 연구해 널리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에서 1967년 결성된 '원탁시회'는 최장수 동인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원탁시회 제공〉

는 에콜(ecole) 커뮤니티이기보다는 소셜(social) "커뮤니티에 가깝다"고 밝혔다.

원탁 창간호는 '원탁문학'이라는 표제 아래 팸플릿 형식으로 발간됐다. 당시 문단의 권위있는 '현대문학' 등 우수 문예지에 소개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이후 1970년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데 이어 1980년대 제1차 문예진흥원 선정 최우수 동인지로 뽑히기도 했다.

'원탁'의 명칭은 10집까지 쓰다가 제11집부터는 '원탁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후부터 동인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문학계의 다양한 기획들로 지면을 채웠다.

2015년부터 '원탁시' 회장으로 동인을 이끌고 있는 강경호 시인은 "원래 동인이라는 것은 에콜(ecole·예술 유파)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라며 "'원탁시'는 특정한 이념이나 지향을 추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20여 명의 회원들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로 소통하고 인간적 우애를 나누는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이번 5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생전의 문병란 시인은 원탁 동인에 대해 이렇게 평한 바 있다. "원탁은 명칭이 그

러나 그렇지 동글동글하고 모난 데가 없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발판으로 뒹굴려거나 비약하려는 야심이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4년 범대순 시인의 타계와 함께 '원탁시'의 제1세대는 막을 내린다. 범 시인은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동인을 지킨 '원탁시'의 증인이었던 셈이다.

이달 중순 발간 예정인 50주년 기념호는 '나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시편을 수록했다. 나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조망할 수 있는 평론, 원탁시의 역사를 조망한 논문, '원탁과 나' 에세이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출판기념회는 동인지가 발간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낭송과, 회원들의 원탁과의 인연 등을 들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갈수록 문학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동인자들은 적절히 발간되고 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문학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는 사실을 방증하지만, 고품격의 울림이 있는 동인지를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전국의 최장수 동인지 '원탁시'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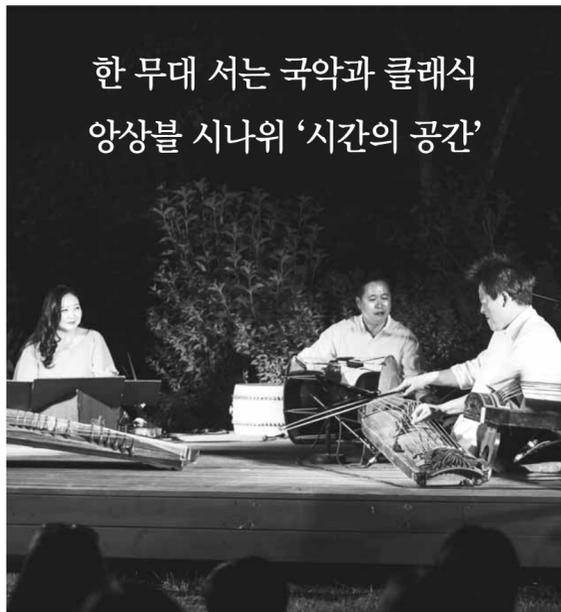
전남 섬 주민의 삶, 기록으로 남긴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조사 신안 마진도 등 4곳

"섬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는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도내 사라져 가는 섬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생활문화예술을 재조명하기 위해 섬 주민 생애사를 채록한다. 생활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주경야독 기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섬 생애사 조사는 전통민요 예술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는 신안 마진도와 진도 가사도, 전통 북 공연이 마을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 여수 여자도와 생활문화 기록 보존이 필요한 여수 추도 4곳에서 추진된다.

마진도에서 실시된다. 마진도는 장산도 부속 섬으로 30가구 6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통민요 예술활동을 지켜오고 있는 장필재 어르신은 중심으로 생애사를 채록한다. 생애사 채록에 앞서 섬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연리지예술단의 초청공연도 펼쳐진다. 섬 생애사 조사 사업은 신안문화원과 여수청년들이 함께하며, 섬의 역사와 민속 및 생태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노인 생애사와 함께 정리해 단행본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재단은 노인의 생애사 채록을 바탕으로 사라져 가는 섬 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고 향후 문화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첫 조사는 12일 신안군 장산면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무대 서는 국악과 클래식 양상블 시나위 '시간의 공간'

23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클래식과 국악, 성악과 판소리가 어우러진 양상블 시나위 콘서트 '시간의 공간'이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양상블 시나위'는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한 '사랑이여'로 호평을 받았던 그룹이다. '시간의 공간'은 광주와 서울 두 도시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클래식과 국악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양상블 사운드를 표현한 작품이다. '시간의 공간'은 시대의 흐름이 머무는 지금을 노래한다. 동시대 다양한 음악가들이 마음의 공간을 울리고 거리와 시간, 장르를 넘어서 사람과 사

람을 연결해준다. 이번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반수진, 플루티스트 최지혜, 첼리스트 김민수를 비롯하여 성악가 조경구, 정현아, 허트리오의 바이올리니스트 허희정, 국립국악원의 정준호, 한국무용수 백경우 등이 출연한다. 작품은 '시간의 공간', '소나타와 산조', '시나위와 카덴자', '가곡과 판소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예매와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및 양상블 시나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7세 이상 관람가능하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10-2220-966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대, 정창권 교수 초청 내일 '지역 스토리텔링' 강연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거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학과 교수)이 14일(오후 2시) 인문대학 학술회의실(인문대 1호관 113호)에서 제21회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스토리텔링으로 지역문화에 숨결을 불어넣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청 강연

의 강사는 고려대 정창권 교수(사진)이다. 정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발맞춰 지식·정보산업에 재차 주목할 필요성과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Information Storytelling)'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실제 활용 사



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과정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인문저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여성, 장애인, 하층민 등 역사 속 소외계층을

연구해 널리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시 스토리텔링 사업 자문 및 평가위원, 한국박물관협회 자문 및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홀로 베풀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향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